

# 사고 패턴을 알면 안전이 보인다



## 사고 패턴을 알면 안전이 보인다

스토리텔링 사례로 보는 시간별, 유형별, 장소별 학교안전사고



스토리텔링 사례로 보는  
시간별, 유형별, 장소별 학교안전사고

# 10만원 미만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실시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중 최초 시범 실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금액 10만원 미만 건에 대하여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시 행 일 2019. 9. 1.
- 변경사항

기존	변경
원본영수증 등 우편 접수	치료영수증 등 <b>첨부파일로 전산 청구</b>

## 10만원 미만 청구절차

(자세한 매뉴얼과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영수증 원본으로 되어 있는 워드 문구는 기존 방법이니, 변경된 절차대로 전산에 업로드 하시면 청구 접수됩니다.

### ※ 첨부서류 안내

- 공제급여 청구서 (학교장 직인 또는 청구인 서명 날인 필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발생 시)
- 통장사본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상단메뉴  
'공제급여청구'

화면하단  
파일업로드 '추가' 클릭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상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사회보험 성격의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 협약내용

-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협조
- 제도의 신뢰도와 의료기관의 전문성 조화를 위한 상호협력
- ※ 피공제자의 신속한 치료와 업무처리를 위해 경기도내 의료원과 업무협약 확대 예정

### · 혜택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기도 관내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 · 시행시기

- 2019년 8월~2021년 7월

## CONTENTS

04 시간별 안전사고, 이 시간을 조심하세요  
교과과정별로 추출한 시간별 안전사고 대표사례

12 유형별 안전사고, 이런 사고를 조심하세요  
교과과정별로 추출한 유형별 안전사고 대표사례

20 장소별 안전사고, 이런 장소를 조심하세요  
교과과정별로 추출한 장소별 안전사고 대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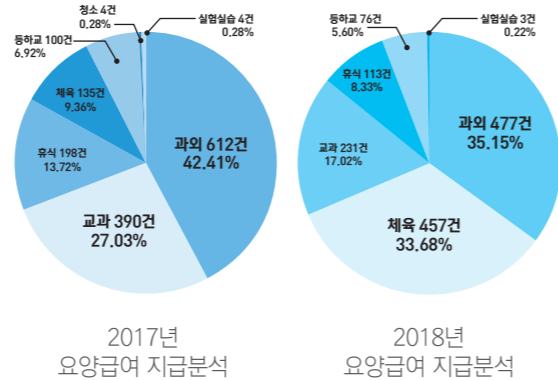
## 이 시간을 조심하세요

### 안전사고 발생 시간을 알면 안전이 보인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을 알면 안전이 보인다. 교과과정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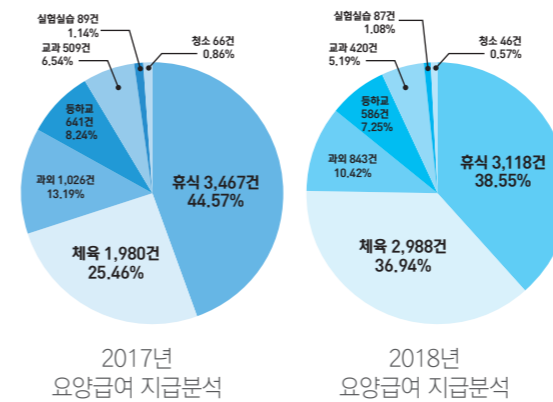
#### 유치원

놀이시간, 돌봄시간 등 과외활동시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체육시간, 교과시간순으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교사가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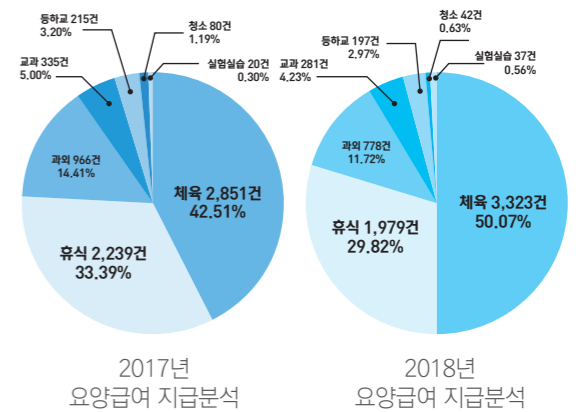
#### 초등학교

휴식시간, 체육시간에 사고가 가장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체육은 과격한 운동보다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로 구성돼 휴식시간보다 사고 발생 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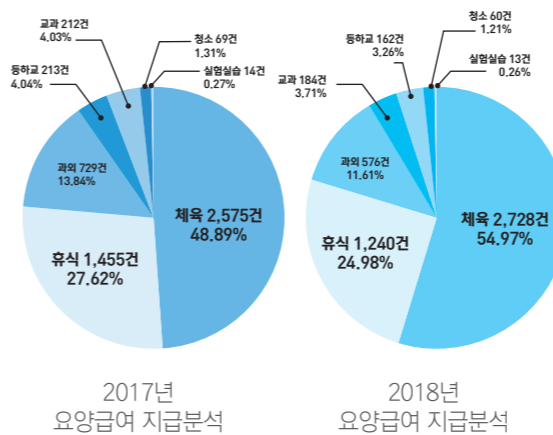
#### 중학교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자율 활동시간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의 사고비율이 서로 뒤바뀌고 있는데, 고등학교로 갈수록 체육시간의 사고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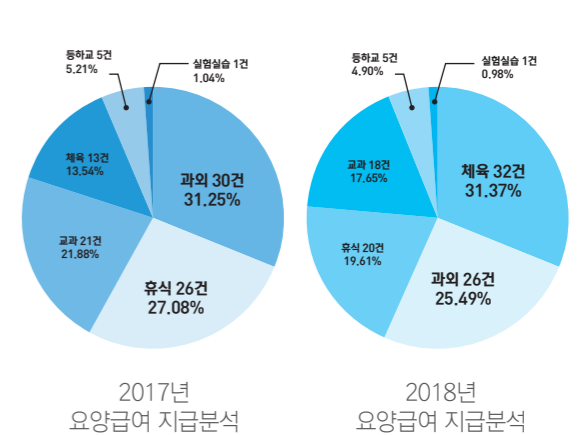
####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은 대부분 축구, 농구 등 자율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사고 발생비율이 높다. 휴식시간의 사고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과 비교해 계속적으로 낮아진다.



#### 특수학교

특수학교에서는 체육시간과 과외시간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는 휴식시간과 교과시간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 01 | 순간의 방심이 부른 사고

과외시간(2018, 35.15%/2017, 42.41%), 야외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자, 여러분! 신나는 놀이시간이에요.”

놀이시간을 알리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아무래도 답답한 교실에 앉아 수업을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며 뛰어노는 놀이시간이 훨씬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앞사람을 보면서 차례대로 줄을 서세요. 오늘 놀이시간에는 앞에 보이는 구름사다리를 타볼 거예요. 양손으로 구름사다리를 잡고 한 팔씩 차례대로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면 돼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며 통제에 잘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놀이터에 폭신한 바닥재가 깔려 있는 탓에 별다른 위험이 있을까 우려하지 않은 것이다.

선생님은 먼저 구름사다리 타는 시범을 보였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서로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고 아우성을 쳤다.

잠시 후 “휘리릭~” 휘슬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순서대로 구름사다리에 올랐다.

아이들이 구름사다리를 타기 시작하자 선생님은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이들 옆에 서서 낙상사고에 대비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름사다리

를 타고 나자 선생님은 그제야 안심하며 한숨 돌렸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선생님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한 아이가 그만 손을 놓쳐 아래로 떨어지고 만 것이었다.

“짜당, 아아~”

바닥에 떨어진 아이는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팔이 땅에 닿으며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폭신한 바닥재가 깔려 있었지만,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유치원 아이들의 사고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 #놀이기구 이용 시 낙상주의 #충분한 주의관찰 필요 #야외수업 중 질서유지

Tip

유치원생의 경우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고, 신체발달이 미숙해 작은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폭신한 바닥재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때는 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는 현장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안전한지 사전에 점검한 후 학습이 이뤄져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02 | 급식시간, 알레르기가 일으킨 사고

휴식시간(2018, 38.55%/2017, 44.57%), 갖고 있던 질병에 의한 사건(알레르기)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급식실로 뛰어갔다. 그날의 점심은 메밀국수였다. 서툰 젓가락질로 메밀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마시듯 비운 아이들은 남은 점심시간에 신나게 뛰어놀려고 급히 운동장으로 뛰어 나갔다. 슬래잡기에 열중하다 한 학생이 친구의 목덜미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너, 모기 물렸나봐? 많이.”

지적을 받은 친구가 자신의 목덜미를 손으로 더듬어본다. 정말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어올라 있다. 그런데 모기에 물렸을 때처럼 붓기지 않고, 마치 소보로빵처럼 편평한 자국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친구는 보건실로 향했다.

보건선생님은 증세를 보자마자 식중독이나 알레르기를 의심했다. 하지만 배가 멀쩡한 걸 보니 식중독은 아닌 듯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니?”

“네?”

아이는 선생님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다. 단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이었다. 입학 당시에 알레르기 보유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긴 했지만, 학생이 몇 해 전의 서류까지 기억해내길 기대하는 건 무리였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웠지만 학생은 쾌활하기만 했다.

별로 간지럽지도 않다고 했다. 불안한 마음에 일단 보건침대에 누워서 좀 쉬도록 한 후 선생님은 학생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 했다. 잠시 후 아이의 숨소리가 바뀌기 시작했다. 가쁘고 커다란 소리가 났고, 아이는 숨쉬기 힘들다며 갑갑해 했다. 뒷덜미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몸통 앞쪽까지 번져나가고, 아이의 얼굴도 빠르게 부어올랐다.

선생님은 산소를 투여하고, 119에 연락했다. 잠시 후, 학생과 선생님은 앰بول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갔다. 학부모도 곧 도착했다. 두드러기는 아이의 무릎까지 퍼진 상태였다. 병원에서 학생의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물었지만, 학부모도 자신들의 아이에게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 가족들이 메밀국수를 먹으려 간 적이 없었고, 그날 학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메밀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간단한 진단 과정을 거쳐 빠른 처방으로 아이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 #급식시간 알레르기성 쇼크 #알레르기 유발식품군 주의

Tip

본인 체질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요인(메밀국수)이 확인된 경우, 학교사고안전사고 대상이 된다. 알레르기의 경우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학생들의 특정 식품 알레르기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식품성분(첨가물) 등을 확인한 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03 | 축구와 달리기의 위험한 동거

체육시간(2018, 50.07% / 2017, 42.51%),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건

○○중학교,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체육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러 반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차지했다. 마치 눈두렁이 갈라놓은 눈처럼, 운동장은 자연스럽게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졌다. 축구나 피구 같은 공놀이를 할 학급은 운동장의 가운데로 모여들었고, 운동장의 테두리는 달리기 수업을 할 학생들 차지였다. 제대로 된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 3학년과 달리, 2학년의 달리기 공간에는 분명한 라인도 없었다.

선생님은 도착지점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타임 랩을 재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 달릴 학생들은 매우 친한 사이로 보였다. 한참 전부터 티격태격 장난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발을 준비하는 자세도 서로 달랐다. 오른쪽은 몸을 웅크리고 선생님의 호루라기에 시선을 집중했다. 스탠드 블록도 없는데, 육상선수를 흉내 내는 것 같았다. 왼쪽의 학생은 꾸부정하게 일어서서 달릴 준비를 했다.

“삐익~!”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둘이 동시에 뛰어나갔는데,

바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 멀리에서 축구공을 쫓아서 갑자기 학생 한 명이 난입했고, 선생님만 바라보던 친구와 요란하게 충돌했기 때문이다. 두 학생이 넘어질 때 왼쪽 친구까지 휘말려 들어가면서 셋이 함께 운동장을 굴렀다. 뒤에서 대기 중이던 학생들이 급우를 부축하기 위해 뛰어나왔다. 축구공 학생과 왼쪽 친구는 일으켜 세울 수 있었지만, 오른쪽 친구는 무릎을 잡고 계속 굴렀다.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고, 입에선 신음이 이어졌다. 그는 운동장에 앰블런스가 도착한 후어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 #반별 운동공간 분리로 충돌예방 #스탠딩 스타트 권장 #주위를 잘 살피도록 교육

Tip

체육시간은 신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다른 시간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의 시간에는 신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한 긴장 상태를 만들어 운동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 간격을 충분히 둘 수 있도록 한다. 달리기의 경우 라인을 그리고 도착지점 이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스타트 기구가 없을 경우 스탠딩 스타트를 권장하여 미끄러져 생기는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 04 | 준비운동 부족이 부른 사고

체육시간(2018, 54.97% / 2017, 48.89%),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건

2교시의 시작을 알리는 수업 종이 울리자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체육수업을 하려고 운동장으로 내려왔다. 아직은 겨울의 쌀쌀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날씨였다. 초봄 오전 나절의 차가운 공기에 맞서는 학생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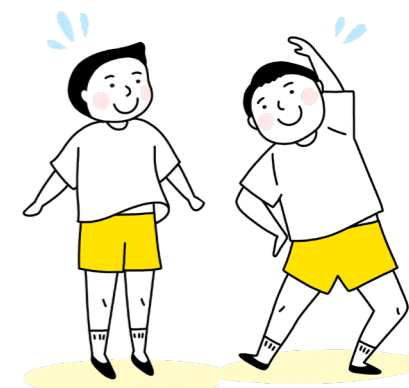
적극적으로 추위와 싸우려는 학생들은 깡충깡충 뛰거나 가벼운 체조 동작을 했다. 몸을 깨끗하게 펴는 그들과 반대로, 체육복의 옷깃을 세우며 몸을 움츠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체육선생님은 준비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몸을 풀게 하려고 했지만, 무성의하게 움직이는 이들을 딱히 나무라진 않았다.

선생님은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축구 대결을 붙였다. 열심히 축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운동장 구석으로 뛰어나갔다. 잔디밭에 다가간 그는 구토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안 좋아?” 심판을 보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다가가면서 물었다. 학생은 선생님을 향해 돌아서려다가 다시 토사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구역질 같은 준비과정도 없이 무작정 토하는 것이었다. 학생은 손으로 입을 닦으며 이상하다는 듯 가우똥거렸다.

“어지럽고 메스꺼운데요. 갑자기... 왜...”

학생은 주저앉더니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그는 선생님에게 업혀 보건실로 가는 중에도 몇 번을 더 토했고, 앰블런스로 후송되어 대규모 뇌수술을 받았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대로 준비운동도 하지 않고 급격히 움직이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었다. 추운 날씨로 수축되었던 혈관은,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상승한 혈압을 감당하지 못했다. 사전 징후 없는 구토와 이어지는 하품, 균형을 잡지 못하는 어지럼증은 모두 뇌질환의 증세였다.



□ #축구경기 중 뇌질환 발생 #충분한 준비운동 필요 #운동 후 휴식

Tip

당시 학생이 축구경기를 하던 중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진단을 받았다. 축구시합으로 혈압상승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실에 오랜 시간 앉아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급작스러운 체육활동이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체육 수업 전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수업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 몸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박수를 천천히 올려 심장에 무리를 덜어주도록 하고 격한 운동을 할 때에는 휴식시간을 통해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05 | 무리한 달리기가 부른 비극

체육시간(2018, 31.37% / 2017, 13.54%),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건

“거봐, 하면 할 수 있잖아?”  
 ○○초등학교는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다. 5학년의 한 선생님은 최근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학생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고양되어 있었다. 그 학생은 정신지체 3급이었는데, 고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정체가 되어 있던 언어능력이 상당 부분 트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이는 운동을 너무 싫어했다.  
 “처음에는 책을 보는 것도 어려웠잖아? 달리기도 똑같아. 지금은 힘들어도 몇 번 뛰다가 몸에 익으면 아주 재밌어.”  
 선생님이 말씀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계속 고개를 저어댔다.  
 “싫어요. 뛰기 싫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등을 살짝 토닥였다.  
 “일단 뛰어보면 다르니까... 팝스도 준비해야 하나니까 일단 뛰어보자. 힘들면 걸어도 괜찮아.”  
 아이는 계속 싫다는 말만 내뱉으며 도리질했지만 선생님도 지지 않았다. 결국 울상이 된 아이는 선생님이 이끌려 오래달리기의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인상을 쓰던 친구도 아이들에 묻혀 한 발씩 다리를 떼었다. 처음에는 비슷한 속도로 달리던 아이들의 거리가 조금씩 계속 벌어졌다.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는 더 많이 뒤쳐졌다. 그래도 선두권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땀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선생님은 크고 느린 박수소리로 아이에게 격려를 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고, 발은 점점 느려졌다. 찌푸린 얼굴이 더욱 구겨졌다. 선생님의 박수소리에 맞춰 걷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 다리를 끄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몸을 비틀며 쿵 소리를 내고 쓰러졌다. 선생님이 달려나갔지만 이미 아이의 눈은 완전히 풀린 상태였다.



☞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 #거부의사 존중 필요 #학생 상태에 따른 대처

**Tip**

사건의 경우 학생이 뛰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를 강행하였다. 급성심장사는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당시 학생에게 오래달리기 수업이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었다.  
 이 학생의 경우 정신지체 3급의 장애 학생으로 비장애인 학생보다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기술 및 체력을 잘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하며, 수업 진행 중에도 학생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LIST UP!**

##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

사고의 유형을 알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01. 강당에서 달려가다가 넘어진 사고
02. 강당에서 수업 중 공을 피하려고 달리다가 넘어진 사고
03. 체육시간에 앉은 채로 커다란 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을 크게 휘두르다가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이 바닥에 부딪혀 꺾인 사고
04. 인라인 수업을 받는 중 학생 발이 깨끗하여 접질린 사고
05. 체육시간에 친구에게 공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던 중 친구가 던진 공을 받으려다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
06.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따라오는 술래를 보며 달리다가 배드민턴 봉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 부위를 봉에 부딪친 사고
07. 학생이 체육시간에 강당에서 공을 주우려고 런닝머신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발목이 꺾인 사고
08. 체육시간에 체력단련실 교실에서 실내 로잉머신 운동을 한 후 발을 고정된 밴드를 풀어 운동을 마무리 하여야 하는데 고정된 상태에서 힘을 주어 발을 빼는 과정에서 발목 인대가 늘어난 사고
09. 체육수업 중에 교사의 눈을 피해 복싱글러브를 착용하고 격투기를 하던 중 고의성과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 상대학생이 사고자를 넘어트리면서 사고자의 머리가 단상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다친 사고
10. 체육시간 중 휴식시간에 뛰어가다 서로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충돌하여 넘어져 다친 사고
11. 장애학생 보행을 돕는 워커를 밀고 걷는 연습을 하던 중 워커를 밀고 강당 가장자리까지 가서 워커를 두고 평균대에 걸터앉다가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
12. 배드민턴 활동시간 중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경기를 한창 하다가 점프하면서 오른쪽 발목을 삐끗하여 발목이 골절된 사고
13. 체육시간에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단체줄넘기를 연습하던 중 학생 본인의 순서가 돼서 뛰어 들어가다가 돌아가는 줄넘기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 부분에 부상을 당한 사고
14. 체육시간에 넷볼(농구변형경기) 연습 경기 중 상대방이 던진 공을 가로채려다가 왼쪽 약지 손가락이 공에 부딪히는 부상을 당한 사고
15. 체육시간에 줄넘기를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팔로 땅바닥을 짚을 때 손목이 골절된 사고
16. 체육시간에 축구경기 중 축구공과 손가락이 충돌하면서 좌측 엄지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사고
17. 파워 발야구 굴리고 받기 활동을 하면서 공을 받다가 손가락이 꺾여 금이 간 사고
18. 체육수업 중 플로우 볼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체육관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이 삐끗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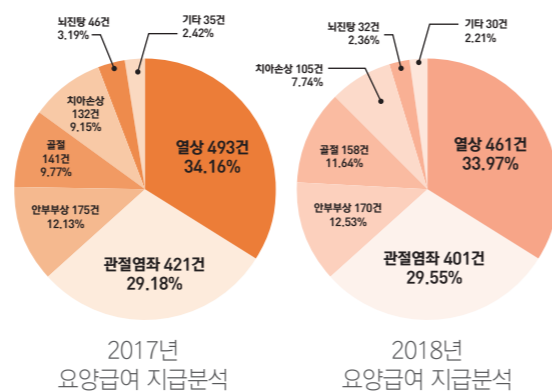
## 이런 사고를 조심하세요

##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알면 안전이 보인다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알면 안전이 보인다. 교과과정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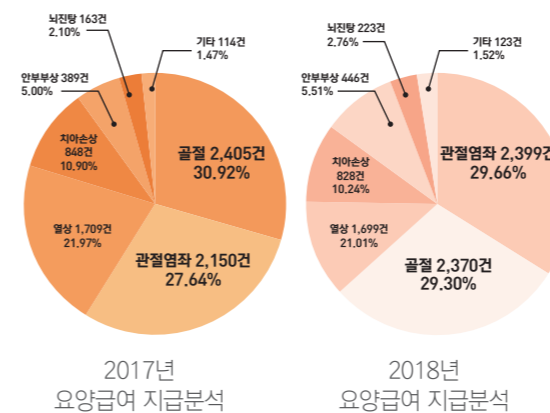
### 유치원

유치원생의 경우 인지능력과 운동감각이 완벽하지 못해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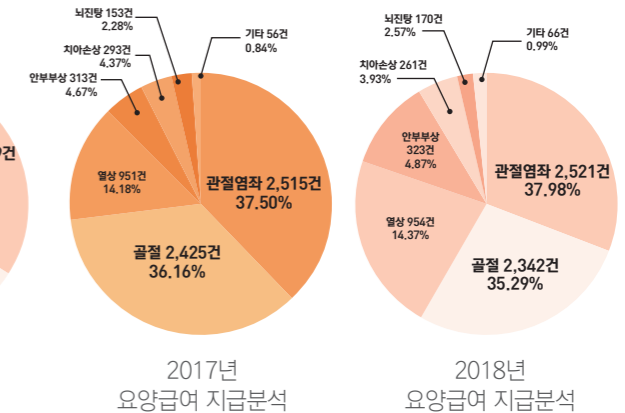
### 초등학교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인지능력이 완전하지 않아 과격한 장난이 큰 상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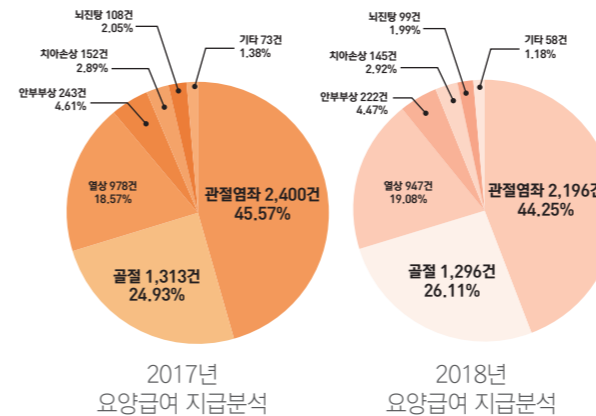
### 중학교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사고 발생 이해도가 높아 과격한 장난에 의한 사고는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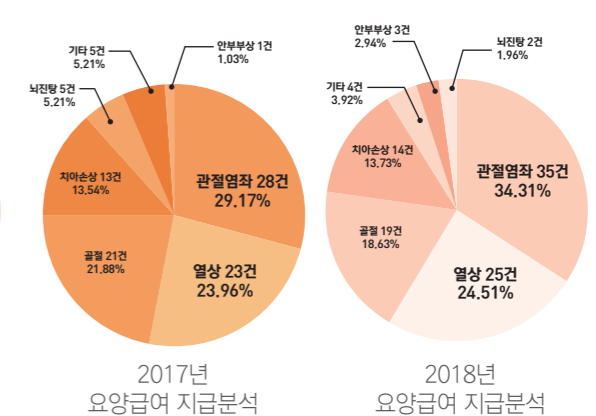
### 고등학교

고등학생의 사고 발생부위는 관절염좌(타박상, 인대손상 등)가 가장 많으며 골절과 같은 심한 사고는 초등학생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수학교

특수학교 학생의 사고 발생부위는 관절염좌(타박상, 인대손상 등)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열상, 골절 등으로 조사되었다.



# 01 | 무질서가 부른 낙상 사고

골절(2018, 11.64% / 2017, 9.77%), 담당교사의 보호·감독의무 과실로 발생한 사건

선생님은 점심식사를 마친 유치원 원생들을 이끌고 복합놀이시설 쪽으로 향했다. 복합놀이시설의 바닥 재질은 탄성우레탄이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폭신한 이질감이 발바닥으로 전해진다. 그 자체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공간이다. 아이들은 시설 중앙에 놓인 작은 성 모양의 놀이기구도 무척 좋아한다. 두 개의 미끄럼틀을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이 벌어지기까지 한다. 특히 굴뚝처럼 밀폐된 2층 미끄럼틀의 인기는 대단해서,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좀 더 나이 있는 아이들에게 밀려나 눈물을 터뜨리는 통곡의 공간이기 일쑤다. 지금 복합놀이시설을 찾은 15명의 유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선생님이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2층 미끄럼틀은 5세의 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은 동생들부터 미끄럼틀을 타도록 배려했다. 아이들은 나이순으로, 키순으로 플라스틱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15명이 줄을 서자 처음 2~3분은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자 뒤쪽 아이들이 지루해 했다. 가장 뒤에 서 있던 5세 아이들은 줄을 이탈해서 술래잡기를 시작했다. 곧장 모든 줄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한 아이가 2층 미끄럼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 매달리려 하다가 아래로 떨어져버렸다. 낙상을 입은 아이가 큰 소리로 울자, 다른 아이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복합놀이시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119 앰블런스가 15명의 우는 아이 가운데 누가 환자인지 찾아야 할 지경이었다.



☞ #놀이시설 이용 중 감독부주의 #부상 시 올바른 처방 #편안한 자세로 쇼크 예방

Tip

유치원생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예측하여 행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상 교사의 보호·감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놀이기구에 대해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야 하며 질서를 지키고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골절 시 상해가 가벼우면 얼음찜질을 해주고 심한 경우에는 압박 붕대로 부기를 막고 탈구된 관절을 부목으로 고정시킨 후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쇼크를 예방한다.

# 02 |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골절 사고

골절(2018, 29.30% / 2017, 30.92%), 학교 일과 중 발생한 사건

점심시간이 끝난 후 학생들이 삼삼오오 교문을 나섰다. 5명씩 조를 짜서 동네 역사를 현장 조사해 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 학생은 마을에서 태어나 여든 해를 살아온 할머니에게 마을의 발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현장수업에 할당된 시간은 5교시와 6교시였다. 5교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조사한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는 시간이었다. 6교시에는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이 4층 컴퓨터실에서 수첩의 내용을 문서로 옮겨야 했다. 5교시와 6교시 사이 쉬는 시간, 선생님은 4층 컴퓨터실로 올라왔다.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너희는 벌써 온 거야? 조사가 끝났어?”

한 아이가 특히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다는 표정이었다. 근친이 취재원이어서 다른 조보다 조사도 빨리 마무리 지은 듯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실을 열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컴퓨터실이 잠겨 있었다.

“선생님, 컴퓨터실 옆 교실 창문이 열려 있어요. 저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한 아이가 창문을 가리키자 선생님은 기겁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위험하니까 절대 안 된다. 선생님이 빨리 열쇠를 가져올 테니까 안전하게 기다려야 해.”

선생님은 학생의 위험한 도전을 경계하며 주의를 줬다. 선생님은 옆의 학생에게도 친구가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말리라고 거듭 당부한 후 열쇠를 가지러 떠났다.

학생들은 잠시 옥신각신했지만 장난꾸러기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에는 4층 컴퓨터실 앞이 텅 비어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건물 바깥쪽에, 4층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친 급우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 #창문 너머 추락사고 #이동수업 및 쉬는시간 안전감독 필요 #창문 잠금장치 설치

Tip

담임교사가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돌발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위험상황이 예측되는 곳에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창문이나 베란다에는 창문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며,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혼자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한다. 교실을 이동하여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인솔에 따르도록 교육한다.



# 03 | 운동부 학생의 관절염좌 사고

관절염좌(2018, 37.98% / 2017, 37.50%), 운동부 학생의 부상 사건과 치료

대개의 스포츠가 그렇지만 럭비에서도 부상 예방, 체력 보강, 팀워크 강화, 전술 습득 등 모든 것을 훈련으로 터득해야 한다. 그래서 ○○중학교의 럭비부도 여름방학을 맞아 하계 훈련을 시작했다.

“힘으로 하지 말라고, 들어오는 공격을 태클로 수비하란 말이야!”

코치인 선생님이 기합을 넣는다. 럭비에선 태클이 무척 중요하다. 공을 들고 돌진하는 공격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태클처럼 유용한 기술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선 국가대표 레슬링선수 출신을 수비 전문 코치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수비용 태클 기술의 전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공격수는 태클을 피해서 전진하려고 수비수의 몸집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수비수는 다가오는 공격수에게 효과적으로 파고들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 과정을 한 시간째 반복하자 선수는 양측 모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가기 시작했다.

“힘들 때 꾸준히 해야 몸이 기억한다. 경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몸의 반응이 맞붙는 게 경기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체력을 쥐어짜서 기술을 몸에

익히라고 격려했다. 그 마음을 알기에 공격수는 정신을 곤두세우고 전력으로 달려왔다. 수비수도 호흡을 멈추고 공격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공격수가 몸을 휘돌면서 피해버렸고, 무게중심을 잃은 수비수는 왼쪽으로 곤두박질치며 데굴데굴 굴렀다. 수비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지만 왼쪽 다리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결국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후에 좌측 슬부 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었다.



□ #격화한 운동 전 준비운동 필수 #큰 부상의 경우 병원 이송조치 필요

Tip

부상을 입은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럭비부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인해 호전가능성은 없는 영구장애로서 국가배상법상 제1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건과 장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애급여,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다. 이 학생처럼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응급처치 후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 조치해야 한다.

# 04 | 창문 난간에서 일어난 사고

골절(2018, 26.11% / 2017, 24.93%), 학교 일과 중 발생한 사건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고3 학생들에게엔 일부일초가 아깝기만 하다. 하지만 저녁식사를 먹고 난 후 몸의 말단신경까지 퍼져가는 졸음을 이겨내긴 쉽지 않다. 한두 학생은 엎드려 짧은 쪽잠에 빠지기도 했고, 일부 학생은 눈을 부비며 간신히 잠과 싸워나가는 중이었다.

“아... 딱 삼십분만 잤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난 시험 끝나면 일주일 동안 안 일어나고 잠만 잘 거야.”

학생은 졸음과 타협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옆자리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결심한다. 학생은 닫힌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소리는 나지만 시원하단 느낌은 들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이 교실 안쪽을 향하지 않는 탓이다. 바람은 창밖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에게엔 조금의 신선함도 나누어줄 수 없다는 듯이, 바깥 세계에서만 솔솔 불어대고 있다. 학생은 손을 뻗어 흘러가는 바람을 살짝 움켜쥐어 본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바람의 잔여물이 미약하지만 시원한 느낌을 준다.

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학생은 의자 위로 왼발을 올린다. 다시 탁상 위로 오른발을 올린다. 친구는

이제야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 챘다.

“뭐하는 거야? 위험해. 내려와.”

학생은 잠깐 고개를 돌려 친구를 바라본다.

“아냐, 잠깐 바람만 쐬 거야.”

그는 창문 난간에 걸터앉으려고 몸을 움직인다. 하지만 잠기운으로 무거워진 몸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바로 적응하지 못한다. 학생의 몸이 휘청거린다. 그는 창틀을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헛잡는다. 중심을 잃은 그는 어두운 밤의 저 너머로 떨어진다.



□ #창 밖 추락사고 주의 #창틀 착석금지 교육 #한자 발생 시 전문구조요원 기다리기

Tip

학생들에게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뒷목을 많이 밖으로 내밀고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이 학생은 추락사고로 제1요추방출성 골절, 척수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추락사고의 경우 다른 부위도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해야 한다. 척추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구조대원이나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 05 | 밤심이 불러일으킨 사고

열상(2018, 24.51% / 2017, 23.96%), 담당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자전거 수업을 해볼까?”  
○○특수학교 체육시간이다. 선생님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6명과 함께 야외수업에 나섰다. 그가 학생들과 먼저 들른 곳은 학교 주차장 근처의 학습용 자전거 보관대였다.

“한꺼번에 여섯 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은 중얼거리면서 삼륜자전거 세 대의 자물쇠를 열었다. 하지만 혼자 세 대의 자전거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갈 순 없었다. 잠깐 망설이던 선생님은 학생 한 명을 먼저 자전거 한 대에 태웠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말했다.

“일단 둘이 운동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잠깐만 기다려라. 바로 올 테니.”

학생들은 우물쭈물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알아듣긴 힘들었다. 선생님은 알겠다는 의미로 혼자 해석하며 한 대의 자전거를 끌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그러자 한 아이가 한 대의 자전거에 올라탔다. 페달을 밟기 시작하며 이참에 운동장까지 전진하려고 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아까 그랬는데?”  
한 명이 더듬더듬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학생의 자전거는 이미 내리막길에 놓여

있었다. 그는 페달을 밟은 다리에 힘을 줘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최선이었다. 아니면 넘어져버리는 것이 차선책이었지만 정신지체 2급의 아이가 내리막길에 내려오는 판판이었다. 학생을 태운 자전거는 교문 방향의 내리막에서 점점 속도를 더했다. 자전거는 수위실 옆 급수창고에 부딪힌 후에나 멈추었고, 아이는 이미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양측 상악골 폐쇄성 골절, 안면부 심부열상,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Tip #특수학급 아동 기구 이용 시 주의감독 필요 #자전거 등 기구와 함께 방치 금지

Tip

특수학급의 학생이나 위험상황의 인지가 어려운 연령의 학생을 보호·감독할 때 학생을 혼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리를 비워야 할 시 다른 교직원 등 보호가 가능한 사람에게 대신 보호·감독을 부탁해야 한다. 자전거 등의 위험상황을 야기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 보관대에 묶어 두거나 다시 넣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발생이 높은 상황에 학생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LIST UP!

##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

사고의 유형을 알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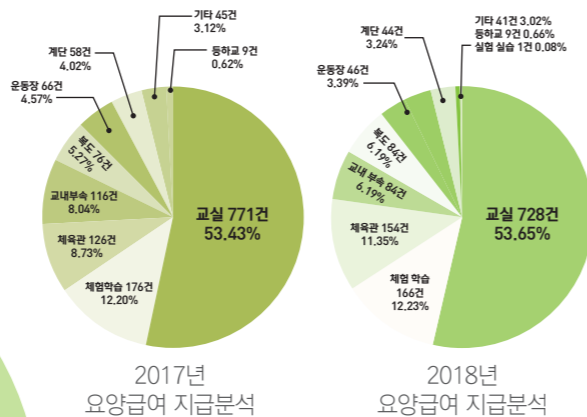
01.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같은 반 학생과 잡기놀이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 아랫입술 안쪽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사고
02. 식당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 의자에 눈썹 위를 부딪쳐서 찢어진 사고
03. 점심식사 도중 의자에 앉아 몸을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손바닥에 바닥을 짚었는데 접질린 사고
04. 점심 배식을 받는 시간에, 교실에서 급식판을 가지고 나오면서 뛰어가는 도중에 양말이 바닥에 미끄러져서 친구의 의자에 턱을 부딪치면서 상처가 난 사고
05. 급식실 가기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다가 벽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친 사고
06. 특수교육지도사(사고자)로 장애학생의 활동지원 중이었고, 학생의 점심식사 지도 후 담임교사가 배식을 받는 동안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재학 중인 학생(사고관련자)이 서 있는 사고자 뒤로 갑자기 뛰어와 안기는 바람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발이 접질린 사고
07. 배고픈 상태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반찬 중 하나인 달걀비에 있는 감자를 손으로 집어 먹는 과정에서 감자가 목에 걸려 급성으로 질식되어 발생한 사고
08. 학생이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급식 도중 물을 가지러 가다가 본인 신발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다친 사고
09.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뛰어 놀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뒤통수에 타박상을 입고, 당시 기억을 잃은 사고
10. 점심 먹으러 가기 전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돌아오던 중 친구랑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계단에 부딪힌 사고
11. 점심시간 1층 복도에서 2층 교실로 돌아오려고 건다가 다른 방향에서 뛰어오는 후배 남자아이와 얼굴(광대 부위)을 부딪힌 사고
12. 점심시간에 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마루바닥에 있던 나무 블록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
13. 급식실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잘못 헛디디며 왼발 새끼발가락 뼈에 금이 간 사고
14. 급식을 먹고 점심시간에 시간이 남아 운동장 주변에서 친구들과 캐치볼을 하던 중 친구가 던진 야구공에 턱 부근을 맞은 사고
15.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학생 A가 탁구공을 학생 B에게 던지고 도망가고, 학생 B가 학생 A를 잡으려고 쫓던 중, 교실에서 뒷문으로 들어오려는 학생 B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학생 A가 교실 뒷문을 세게 닫았고, 그 문틈에 학생 B의 손가락이 끼인 사고
16.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던 중 2층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이 옆으로 돌아간 사고
17.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축구를 하던 중 공을 차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디며 발목이 접질리고 인대가 늘어난 사고
18. 학생이 점심시간에 운동장 부근 옆 화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 앞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날아오는 공을 마대자루로 막으려다 발생한 사고



## 이런 장소를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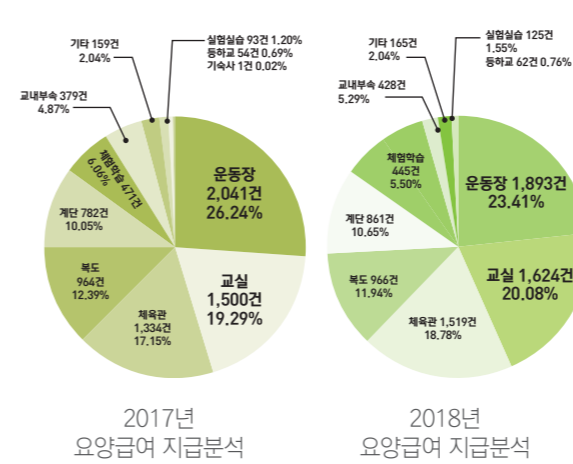
## 안전사고 발생 장소를 알면 안전이 보인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를 알면 안전이 보인다. 교과과정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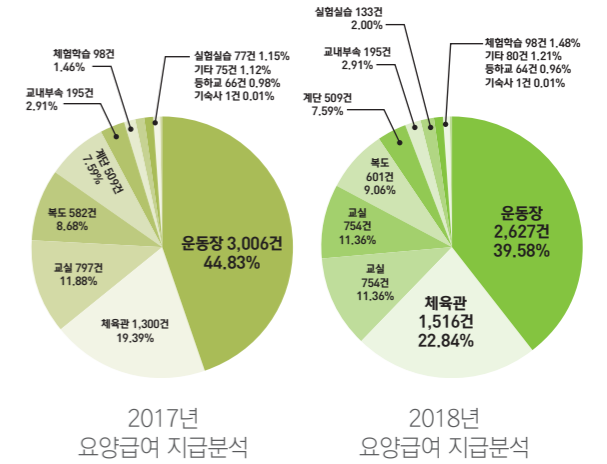
###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은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점심시간, 돌봄 대기시간 등)에 운동장, 교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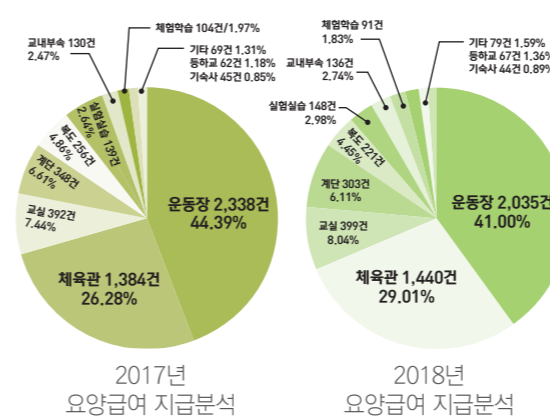
### 중학교

중학생들의 안전사고는 체육시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육시간 활동이 벌어지는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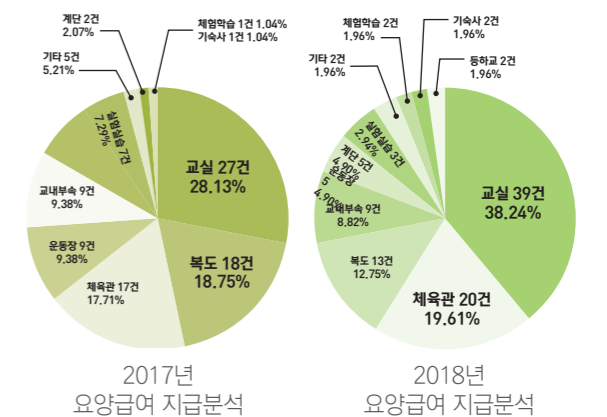
###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안전사고는 전체사고의 70% 정도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발생하는 사고보다는 체육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특수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은 체육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 또한 등하굣길은 학부모 또는 동행하는 선생님이 있어 사고발생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 01 | 악몽 같은 낮잠

교실(2018, 53.65% / 2017, 53.43%), 갖고 있던 질병에 의한 사건

○○유치원 가베 수업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색종이를 잘라서 스케치북에 꽃모양으로 붙였다. 한 친구는 빨간 색종이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가위는 잡지도 않았다. 그러더니 무척 피곤한 것처럼 아예 탁자에 엎드려버렸다. 가베 선생님이 옆으로 다가오며 슬며시 몸을 일으켰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눕길 반복했다. 선생님은 말을 걸러다가 아단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을 걱정한 것인지 다른 친구에게 가버렸다. 아이는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것 같았는데, 중간중간 흠칫흠칫 놀라는 모양새였다. 마치 악몽이라도 꾸는 듯했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선생님은 밥을 먹고 자자고 말했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집에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잠시 고민했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표현을 하진 않았다. 그냥 무기력해 보이는 게 전부여서 조퇴시키진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꽃 만들기 심화수업이 이어졌다. 종이로 카네이션을 접는 수업이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엎드려 있던 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앞으로 걸어 나와 선생님을 통과하듯 지나쳤다. 아이가 간 곳은 교실의 구석, 역할놀이

구간이었다. 아이는 매트 위에 가만히 몸을 누였다. 확실히 몸이 안 좋긴 안 좋구나, 선생님은 생각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오늘의 방과가 끝난다. 그냥 쉬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교실을 돌면서 모든 아이들의 카네이션을 점검했다. 선생님은 누워있는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줄 생각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아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유치원에선 119를 부르는데 등 조치하려고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을 하였으나 저산소 허혈뇌병증 및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패혈증, 범발성혈액응고장애, 요로감염, 대뇌부종이며, 그 원인은 심정지에 의한 전신 저산소-허혈, 혼수, 그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71의 감염이었다.



☞ #컨디션 상이한 아동 재확인 #활동참여 부진한 아동 유의감찰

### Tip

이 사례의 경우 학생이 잠복기가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심정지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은 의식을 잃기 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방치되어 있었다.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의식을 잃은 후 적절한 조치를 즉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이 교육활동이 아닌 학생의 병적인 것이어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유치원생의 경우 교사의 주의를 더욱 요구된다. 학생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유치원생의 경우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 02 | 위험한 장난이 부른 비극

교실(2018, 20.08% / 2017, 19.29%), 위험한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월요일 아침, ○○초등학교의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교실 뒤에선 몇몇 남학생들이 주말 TV 프로그램을 흥내 내며 놓고 있었다.

“내 필살기를 받아라!”

아이는 필통에서 꺼낸 연필 세 자루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외쳤다.

함을 맞추던 친구는 점퍼를 벗어 활짝 펼치며 필살기를 막아낼 준비를 했다.

“마음껏 던져라!”

한 친구가 연필을 던졌고, 반대편 친구는 날아오는 연필을 점퍼로 튕겨버렸다. 두 자루의 연필은 곧장 바닥에 떨어졌지만, 마지막 한 자루가 점퍼에 휘감겼다가 뿌리쳐지며 교실 앞쪽으로 날아갔다. 그곳엔 옆자리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몸을 비스듬하게 틀고 있는 친구가 앉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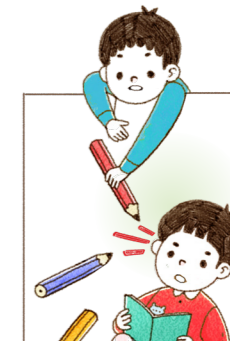
“으악!”

영문도 모른 채 연필로 공격 받은 친구가 눈을 감싸며 쓰러졌다.

학습자료를 가져오던 담임 선생님은 커다란 소리가

들리자 달음질해서 교실 문을 열었다. 그의 눈에 들어 온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쓰러진 아이 주변으로 급우들이 모여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헤치고 부상 학생에게 다가갈 상황을 파악한 선생님은 보건실과 119에 연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왼쪽 눈에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게 되었다. 아이들이 던진 물품에 제3자가 눈을 다치는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어린아이들이어도 장난을 치는 당사자가 되면 의식적으로 방어에 나서지만 제3자의 경우에는 속절없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장난으로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였다.



☞ #상해가능성 있는 도구 및 장난 예방교육 #교실내 격한 놀이 사전방지

### Tip

두 학생이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제3자가 부상을 당하였다. 학교생활 중 일어난 사건으로 학교안전법이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생이 이러한 돌발행동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에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 공제회가 공동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공제회의 보상 없이 가해학생 측에서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미리 알고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이 위험한 물건과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칼, 가위, 뾰족한 연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장난을 예방해야 한다.

# 03 |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장난

운동장(2018, 39.58%/ 2017, 44.83%),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중학교의 운동장, 학생들이 농구코트 앞에서 2교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말고 격투기를 가르쳐주면 좋겠어. 나를 잘 가르쳐서 UFC에 진출시키면 나라에도 좋은 거 아냐?”

짧은 머리에 체격이 좋은 학생이 거들먹거리며 주변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다. 친구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반응이 시원치 않자 학생은 한 명에게 다가갔다.

“이번에 보니까 타격도 타격이지만 관절기가 진짜야. 근데 보통은 관절기를 누워서 하잖아?”

체격이 좋은 친구가 다른 친구의 왼팔을 잡고 돌려 비틀었다. 팔이 꺾이자 작은 몸집의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파, 아파! 진짜 아파!”

그는 발꿈치를 세워 팔을 쥐는 친구의 키높이에 맞춰 고통을 줄이려고 했다. 너무 아파서 말을 잊지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자 격투기 학생도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팔을 비틀던 친구가 손을 놓아버리자 까치발로 버티던 학생의 균형이 깨졌다. 그는 한편으론 친구에게 벗어나려고 했지만 한편으론 친구에게 기대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균형이 깨지자

작은 몸집의 아이는 팔이 접힌 상태로 농구장의 우레탄 바닥에 떨어졌다. 자신의 몸통이 팔을 눌러버렸고, 통증은 어깨까지 올라왔다.

다른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다가왔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뼈를 다친 그를 일으켜 세우거나 부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학생은 앰블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코트 위를 굴러다니며 괴로워했다.



☞ #놀이를 빙자한 학교폭력 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필수 #피해학생 위센터 이용 권장

**Tip**

이 사례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현재는 학교폭력 피해가 학교안전법상 지급 대상으로 개정되었지만, 이 사건의 발생 당시에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치료비용은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학교폭력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무심한 말과 행동도 살인과 같다는 것과 방관과 방조 또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만약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교육감이 지정한 치료기관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Wee)센터를 통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04 | 하교 후 축구연습을 하다 생긴 사고

운동장(2018, 41.00%/ 2017, 44.39%), 하교 후 발생한 사건

정규수업이 끝나고 학생의 한 무리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윗옷을 벗었다. 이들은 오른쪽으로 모였고, 윗옷을 걸친 학생들은 왼쪽으로 모였다. 상의의 착용 여부가 유니폼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럼 전후반 30분으로 하고, 쉬는 시간은 뭐... 적당히 하자.”

학생들은 축구를 하려고 모인 것이었다. 한 달 후 교내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축구로 옆 반에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버리고 있었다. 재미난 건, 축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반 급우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타도의 대상인 반 학생도 몇 명 끼어들어 있었다.

“어차피 너희는 우리 반에 안 돼. 그래도 오늘 내가 제대로 지도편달해 줄 테니까 많이 배워.”

간죽거리는 옆 반 친구에게 한 학생이 헤드록을 걸었다.

“할 것 없는 놈, 불쌍하다고 끼워줬더니...”

학생들은 장난을 치며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갔다. 선수 중 한 명이 외치는 소리에 따라 전반전이 시작되었다.

“인이라니까?”

“넌 멀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잖아. 아웃이야.”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심판도 없었다. 심심치 않게 라인 인과 아웃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프사이드 룰은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든 학생들은 신나게 공을 찼고, 팽팽한 경기에 학생들의 아드레날린도 솟구쳤다. 윗옷 벗은 팀에서 내지른 슈트를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공은 골라인 밖으로 벗어났다. 코너킥 상황, 학생들이 모두 골대 가까이로 모여들었다. 골대 앞쪽으로 높게 코너킥을 차올렸다. 공격과 수비 모두 공을 차지하려고 뛰어드는데, 공격수 한 명의 몸이 봉 뚫다가 떨어졌다. 공을 놓고 다투던 그는 수비수의 발에 채여 떨어지면서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다. 오른쪽 무릎이 옆으로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측부 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 부상을 입게 되었다.



☞ #운동 중 몸싸움으로 인대파열 #학우 간 경기에 규칙적용 교육

**Tip**

이 사례는 정규수업이 끝나고 1시간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다. 이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에 통상적으로 머무는 체류시간이나 하교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체육대회가 예정된 일자외도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 교사가 체육대회 준비를 지시 또는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 05 | 칭찬이 부른 사고

교실(2018, 38.24% / 2017, 28.13%),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특수반 교실의 미술시간, 선생님이 한 학생의 찰흙 작품을 들고 폼평했다.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이걸 너무 예쁘니까 반칙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닳았잖아. 차라리 선생님을 더 닳은 것 같은데?”

클레이를 만들었던 학생은 활짝 웃으며 교실 앞으로 나왔다.

“나, 나예요. 예쁜 거 나예요.”

아이가 자신의 클레이 작품을 향해 다가오자 선생님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줬다.

“그래, 네가 아주 예쁘구나. 클레이를 잘 만들었으니까 상을 받아야겠는데?”

학생은 선생님을 와락 꺾안더니 타고 올라가려 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자주 벌어졌던 것 같았다. 선생님은 아이의 두 팔을 잡더니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상으로 어디에 갈까? 부산으로 갈까, 여수로 갈까?”

학생은 선생님의 이마를 두 손으로 잡고 더듬더듬 말했다.

“부산은 어디예요? 여수는 어디예요?”

묻는 와중에도 아이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는 이마를 감싼 두 손에 힘을 주고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듯 몸을 흔들었다.

“어? 어? 움직이지 마. 잠깐만 멈춰봐.”

당황한 선생님이 학생을 자제시키려고 했지만 신이 난 아이를 멈추게 할 순 없었다. 아이는 선생님을 흔들기라도 하려는 듯 움직여댔고, 결국 교실 바닥으로 떨어져버렸다.



### ☞ #사고발생 가능성 높은 놀이 주의 #특수아동의 위험인지도 파악

#### Tip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학생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의 어깨에 올라가 심하게 움직여 균형을 잡기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학생의 과실 85%가 인정되었다. 학생의 과실도 인정되었지만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학생들과 놀 때에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LIST UP!

#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

사고의 유형을 알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01.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교실 앞 복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친구와 크게 부딪힌 후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친 사고
02. 수업 후 휴식시간에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가려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을 뺐었다가 앞사람이 닫고 있는 문에 오른손 손가락이 끼인 사고
03.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원활한 다음 수업 진행을 위해 전자 교탁에 있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전자 교탁의 문을 닫는 도중 오른손 손가락이 끼어 찢어진 사고
04. 실내화를 여러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던지며 놀던 중, 한 학생 책상 위에 실내화가 떨어져 가위로 실내화를 잡으려 하고, 다른 학생은 손으로 실내화를 잡으려는 순간 가위에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
05. 수업을 마치고 학생이 책상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다른 학생이 몸을 돌리면서 어깨를 치게 되었고, 이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앞에 있던 다른 학생의 머리에 얼굴을 박게 되어, 안경이 부러지면서 코와 눈 사이를 찢어 피부가 찢어진 사고
06. 학생이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축구공으로 장난을 치다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공에 맞아 뺨 사고
07. 쉬는 시간에 학생 A와 학생 B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며 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각자 뒤를 돌았는데, 한 학생이 들고 있던 볼펜에 다른 편 학생의 볼이 긁히면서 상처가 난 사고
08. 쉬는 시간에 4층 올라가는 계단 앞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시멘트 바닥을 발로 치는 바람에 발가락에 부상을 당한 사고
09. 급식시간 전 화장실을 다녀오다 실내화가 벗겨지면서 맨 발이 지나가던 친구의 발에 부딪힌 사고
10. 쉬는 시간 교실에서 친구와 닭싸움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혀 넘어진 사고
11. 쉬는 시간 놀이 활동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사고
12. 쉬는 시간 교실에서 이동 중 책상에 걸려 바닥에 치아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
13. 5교시 후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머리를 숙이다 화장실 문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진 사고
14. 쉬는 시간 복도를 주행하고 있던 중, 갑자기 다른 학생이 문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와 피하려고 하다 넘어져서 손을 짚었는데 손에 무리가 와 부상을 당한 사고
15. 쉬는 시간에 사물함에 물건을 꺼내러 가는 도중, 발이 꼬이면서 넘어져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사고
16. 동아리활동 중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에서 낙엽을 주워오다 구렁대 옆 돌층계에서 넘어지며 새끼 손가락이 꺾인 사고